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가정                      제목 : 가정과 교회                      성경: 창세기 2장  
21-25절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지라 부르리라 하니라

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25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2:21-25)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공동체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물론 가정이 교회는 아니고, 교회 또한 가정은 아니다. 각자 고유의 기능과 특성이 있으며 이 둘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두 공동체에 공통분모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독신은 가정은 아니겠지만, 그가 교회에 속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적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가 주는 가정적 사랑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울은 교회를 통한 사랑을 위해 헌신하고자 가정을 포기한 사람이기도 하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가정과 교회의 모델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주인공 마리아는 수녀원에 속해 있지만, 위기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 교사로 파송 받는다.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아이들은 그녀를 사랑하게 되고, 트랩 대령도 그녀를 사랑하게 되어 결국에는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 새로운 모험을 하게 된다.

마리아는 고아로서 온전한 가정을 가져볼 꿈도 꿀 수 없는 여인이었다. 트랩대령도 전쟁영웅이었으나 상처를 하였으며 아이들 때문에 고민에 싸여 있다. 곧 결혼을 해야 하는데 이 남작부인이 아이들을 사랑해 줄지가 염려된다. 그러나 마리아는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며 아버지보다 더 아이들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런 사랑이 바탕이 되어 트랩대령과의 사랑도 꽃을 피우게 된다.

마리아는 12번째 가정교사다. 만약 그녀도 아이들을 군대식으로만 대했다면 그녀는 며칠 후 수녀원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이들을 사랑했고, 아이들은 금방 마리아가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고, 번개가 치는 밤 아이들은 마리아의 방으로 모두 모여 들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현실적으로 보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사랑은 저주를 끊고 위기를 도전의 기회로 역이용하는 용기를 주었다.

저주가 없는 가정은 없다. 저주가 없더라도 사랑이 필요 없는 가정은 없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는 사람도 없다. 사랑이 있는데 희생할 수 없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사랑만 있다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이 사랑의 힘과 그 기적에 대해서 가장 확신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물론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현실은 영화처럼 아름답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최고의 가치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꼭 결혼을 하고 자녀를 길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독신으로도 얼마든지 교회를 통해서 자녀를 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교회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고, 가정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 다워지고, 가정은 가정다워진다. 우리는 가정이면서 동시에 교회이다.

교회는 선교적 사명이전에 가정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교리적 사명 이전에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구령의 사명 이전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이다.(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라는 의미)

즉, 중요한 것과 더 가치있는 것은 선교적 사명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적 사명을 먼저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정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변함없는 가치와 죽음으로서도 지켜내야 할 가치는 교리적 사명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순서로서는 우선이다. 교회는 구령사명이 가장 큰 사명이다. 그러나 이 또한 빛과 소금의 사명이 우선이다.

선교적 사명보다 가정적 사명을 먼저 감당해야 한다는 뜻은 가정의 사명, 즉 공경과 사랑과 순종과 섬김과 희생의 사명을 말한다. 물론 완악함과 영적전쟁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사명을 소홀히 하지는 말고 노력해야 좋다.

교리적 사명은 자칫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독선이나 우월주의에 빠진다. 왜냐면 기독교적 교리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저버리는 예가 너무 많았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없는 교리는 마귀의 도구에 불과하다.

왜냐면 사랑이 없는 곳에는 미움과 교만과 독선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고, 그들의 손에 탁월한 교리가 들려졌다면 가장 예리한 살인도구로 변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으로 교회의 구령사업도 생각할 수 있다. 교회가 선행에 앞장서지 않고는 결코 선량한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가정을 위해서 가장 로맨틱한 일을 하셨다. 남자의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 그냥 선포해서 아담의 하인으로 만들 수도 있었고, 진흙으로 이겨서 만드셨다면 정말 공평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의 뼈중의 뼈로, 살중의 살로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창조는 경이로우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감동적이며 로맨틱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스러운 존재로 만드셨다.

마지막으로 그 둘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가족은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이다. 사랑에는 부끄러움이 없다. 물론 사랑이 목적이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죄라는 뜻이 아니다. 사실은 부끄러운줄 모르는 것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죄다.  
다만 그 부끄러움을 해소하는 사랑을 강조하는 말이다. 가까이 지내는데 왜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부끄러움을 모른체, 보지 않는척 하라는 뜻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세심하게 살펴서 그것을 돌봐야 하는지, 대신 갚아주어야 하는지, 씻겨주어야 하는지, 훈련하도록 해야 하는지, 훈계해야 하는지, 채찍질해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는 사랑이 충만해야 한다. 그러면 부끄러움이 해소된다. 아멘.

## <찬양예배>

주제:나    제목:나는 누구인가?    말씀:출애굽기 3장 1-15절

1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 여호와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9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3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출3:1-15)

모세는 스스로 자신을 정의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되는데 실패한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배우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산에 속해 있었다.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 자신을 계시하셨다.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이 모세가 모세 스스로를 정의하는 일에 핵심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비로소 자신이 깨달아진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사람은 기적에 민감하도록 지음 받았다. 그러나 사이비 기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기적에 반응하도록 지음 받았다. 하나님의 기적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은 진짜 사람이 된다.

자신이 진짜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십계명 제3계명이 자신에게 영원한 계명이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경외감이 결석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5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경외함을 회복한 사람에게 비로소 사명이 주어진다.

사명이 주어질 때 비로소 자신이 누구임을 깨닫게 된다.

인간은 사명의 존재이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9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나 모세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 아마 출생의 비밀 때문이었으리라. 그는 3개월을 숨겨졌다. 그는 임신 때부터 불안을 배운 사람이었다. 그는 강물에 버려졌다. 두려움의 저주가 그를 엄습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결국 모세의 장점, 강점, 은사가 되었다.

그가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